

# NC AI, 게임·시뮬레이션 기술 현실 산업문제 해결도구로 진화

포스코DX와 로봇 기술협력 협약  
비전·언어·행동모델 최적화 집중  
로봇·국방 등 피지컬 AI 적용 확대

인기 게임 '리니지' 개발사인 엔씨에서 분사한 NC AI가 피지컬 AI 시장 공략에 본격 나섰다. 게임 개발 과정에서 축적한 시뮬레이션 기술을 바탕으로 로봇 학습과 디지털트윈 분야로 사업 영역을 넓히는 모습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NC AI는 최근 포스코DX와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공동 개발 및 기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공동 연구와 디지털트윈 기반 시뮬레이션 환경 구축을 추진한다.

이번 협력에서 NC AI는 시각·언어·행동을 통합 처리하는 비전·언어·행동 모델 최적화에 집중한다. 포스코DX는 산업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디지털트윈 기반 테스트 환경 구축을 맡는다.

업계가 주목하는 부분은 NC AI의 출발점이 게임 산업이라는 점이다. 피지컬 AI는 로봇이 현실 세계에서 움직이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학습시키는 기술이다. 이 과정에서 가상 환경과 실제 환경 간 차이를 얼마나 줄이느냐가 핵심 경쟁력으로 꼽힌다.

게임사는 수십 년간 현실과 유사한 물리 엔진과 시뮬레이션 환경을 구축해 왔다. 특히 캐릭터 움직임과 사물 충돌, 공간 인식 등을 구현하는 기술은 로봇 학습



NC AI는 최근 포스코DX와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공동 개발 및 기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AI가 만든 이미지

에 필요한 가상 훈련 환경 구축과 맞닿아 있다.

업계 관계자는 "피지컬 AI 경쟁의 핵심은 현실과 유사한 환경을 얼마나 정교하게 구현하느냐"며 "게임 엔진과 시뮬레이션 기술을 보유한 게임사들이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NC AI의 행보는 최근 들어 더욱 빨라지고 있다.

앞서 회사는 현대로템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국방과학기술연구소가 추진하는 '피지컬 AI 기반 통합 시뮬레이터 및 모듈형 로봇 시스템' 연구개발 사업에도 참여했다. 해당 사업은 미래 전장 환경에서 다수의 무인 로봇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운용하기 위한 핵심 기술 개발 프로젝트로 평가받는다.

NC AI는 이를 위해 자체 개발한 '월드 모델'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다. 월드 모

델은 AI가 물리 법칙과 공간 구조를 이해하고 미래 상황을 예측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로, 차세대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의 핵심 요소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NC AI가 게임 AI 기업에서 로봇 AI 기업으로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제조업과 국방 분야를 중심으로 피지컬 AI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게임 산업에서 축적한 디지털트윈 역량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NC AI는 향후 로봇과 국방, 스마트팩토리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피지컬 AI 적용 사례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게임 기술이 현실 세계의 산업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 진화할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metro

네이버, AI 영역 확장

## 국방 AI 시장 선점 채비

러-우 전쟁 등서 AI 기술 활용  
국방 AX 전담 태스크포스 출범  
하이퍼클로바 X·클라우드 접목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을 거치며 인공지능(AI)이 전장의 핵심 기술로 자리 잡고 있다.

드론 영상 분석부터 표적 식별, 정보 수집, 작전 지원까지 AI 활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글로벌 빅테크와 방산 기업들의 국방 AI 경쟁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국내에서는 네이버가 국방 분야 전담 조직을 신설하며 시장 진출 채비에 나섰다.

네이버클라우드는 1일 국방 AX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다. TF는 국방 분야 AI-클라우드 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군 환경에 적합한 AI 모델 및 인프라 적용 방안을 검토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직 신설은 단순한 신규 사업 확대 차원을 넘어 국방 AI 시장 성장 가능성을 선점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최근 각국 군은 생성형 AI와 멀티모달 AI를 활용한 전장 정보 분석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드론과 위성 영상 분석, 실시간 전황 파악, 표적 탐지 등에 AI 기술이 적극 활용되고 있다. 과거 군사 정보 분석이 인력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방대한 데이터를 AI가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구조로 변화하는 추세다.

네이버는 이러한 변화에 맞춰 자체 초거대 AI 모델 '하이퍼클로바X'와 클라우드 인프라를 국방 분야에 접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텍스트뿐 아니라 이미지·영상·음성 정보를 함께 처리하는 오픈도달 AI 기술이 국방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업계에서는 국방 AI 시장의 핵심 경쟁력이 단순 모델 성능보다 보안성과 데이터 주권 확보에 있다고 본다. 군 데이터는 대부분 폐쇄망 환경에서 운영되는 만큼 해외 플랫폼보다 국내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AI 서비스 수요가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최빛나 기자

## 드론·AI 접목... 피지컬 AI 공략 박차

'유비파이' 전략적 투자 단행  
스마트시티 등 범위 확대 기대

네이버가 드론 전문기업 유비파이에 투자하며 피지컬 AI 사업 영역 확대에 나섰다.

네이버는 글로벌 드론 전문기업 유비파이에 전략적 투자를 단행했다고 1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력을 통해 AI와 클라우드, 디지털트윈 기술을 드론 분야와 결합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유비파이는 드론 군집비행 기술과 자율비행 플랫폼을 개발하는 기업으로 해외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해왔다. 최근 국내 드론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1000만달러 수출의 탑'을 수상했으며, 드론 운영체제 'PX4'를 관리

하는 글로벌 단체인 드론코드재단 이사회에도 국내 기업 중 유일하게 참여하고 있다.

네이버는 자사가 보유한 AI-클라우드·디지털트윈 기술과 유비파이의 드론 하드웨어 및 운용 기술을 결합해 다양한 사업 기회를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자율비행 드론과 AI를 접목한 피지컬 AI가 차세대 산업 분야로 부상하면서 스마트시티와 공공 분야를 중심으로 활용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네이버가 최근 로보틱스와 디지털트윈, 자율주행 등 현실 세계와 AI를 연결하는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이번 투자가 피지컬 AI 생태계 확장 전략의 연장선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최빛나 기자

## "합리적 가격에 유튜브·구글AI 동시 이용"

LG U+, 2만9000원 결합 상품 선배  
LG유플러스는 유튜브 프리미엄과 구글 AI 프로 결합 상품을 출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결합 상품의 강점은 합리적인 가격이다. 구글 AI 프로 구독료인 2만9000원에 유튜브 프리미엄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멤버십 등급 VIP 이상 고객에게는 4000원 추가 할인 해주는 VIP록 혜택도 있다.

공략 대상은 크리에이터와 같이 콘텐츠 소비와 생성형 AI를 통해 이미지를 제작하는 사용자다. 지난해 출시한 구글 AI 프로 결합 상품은 올리브영, 메가커피 쿠폰 등 생활 밀착형 혜택을 제공했었다. 이번에는 영상 소비와 AI 활용을 동시에 수행하는 고객들의 이용 패턴에 따라 이 같은 상품을 출시했다는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상품은 자사 구독 플랫폼 '유독'에서 만나볼 수 있다. 유독에서는 콘텐츠, 쇼



LG유플러스 직원들이 유독 프로모션을 소개하는 모습. /LG유플러스

핑,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결합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현재 총 41개 브랜드와 제휴를 맺고 있다.

/조민선 기자 msjo@

## 에어윌렉스, 아스날 FC 파트너십 행사 성료

글로벌 핀테크 기업과 스포츠 만남  
파트너사·고객 등 180여명 참석

#. 지난달 30일 오후 11시. 모두가 휴식을 취할 시간인데도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슈피렉홀에 아스날 FC의 응원 타월을 두른 젊은이들이 택시에서 내려 삼삼오오 모여들었다. 다음날인 31일 새벽 1시부터 열리는 아스날 FC와 PSG(파리 생제르맹 FC) 간에 열린 '2025-2026 UEFA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온라인으로 관람하기 위해서다.

아스날 FC의 공식 스폰서인 글로벌 결제 및 금융 플랫폼 에어윌렉스는 지난달 30일 밤부터 31일 새벽까지 이어진 '에어

윌렉스×아스날:아스날 매치 뷰잉 파티'를 성료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소속 구단 아스날 FC와 공식 파트너십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에어윌렉스 주요 파트너사와 고객 및 인플루언서 등 180여명이 참석했다. 스포티비(SPO TV), 아스날 코리아 서포터즈 클럽과 긴밀한 협력으로 기획됐다.

이날 경기에 앞서 진행된 특별 대담 세션에서는 최근 에어윌렉스 코리아 중소·중견기업 부문(SME) 책임자로 선임된 권윤아 총괄과 김근빈 엔터프라이즈 총괄, 이상훈 아스날 코리아 서포터즈 클럽 부회장이 참석했다. 양측 연사는 아스날

FC 파트너십의 전략적 의미와 글로벌 협력 기회를 비롯해 스포츠 팬들과 교류를 통한 시너지 확장성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다.

권윤아 총괄은 "이번 행사는 글로벌 핀테크 기업과 스포츠와의 만남으로 에어윌렉스가 글로벌 금융을 통해 지향하는 바와 같이 문화와 국경을 넘어 전 세계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특별한 역할을 한다"며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국내 시장에서 에어윌렉스의 인지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국내 시장에서의 비즈니스를 한층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인터랙티브 퀴즈와 기념 촬영도 이어졌다. 또 대형 스크린을 통해 이날 생중계한 아스날 FC와 파리 생제르맹(PSG)의 유로파리그(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경기를 관람했다.

/조민선 기자

## 'AI 쇼핑 에이전트' 개인화 경험 확대

출시 3개월 만에 능동적 대화  
이용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제안

네이버가 쇼핑앱 내 인공지능 AI 쇼핑 에이전트 기능을 한층 강화하며 개인화 쇼핑 경험 확대에 나선다.

네이버는 쇼핑앱 '네이버플러스 스토어'의 AI 쇼핑 에이전트가 출시 3개월 만에 사용자와 능동적으로 대화하는 형태로 진화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월 베타 버전으로 선보인 AI 쇼핑 에이전트는 이용자의 관심사와 취향에 맞는 상품을 추천하고 정보를 요약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도 이용자의 쇼핑 이력과 최신 트렌드를 분석해 먼저 쇼핑

방향을 제안하는 기능이 추가됐다.

AI 쇼핑 에이전트는 클릭, 찜, 장바구니 담기 등 이용자의 쇼핑 활동 데이터를 바탕으로 맞춤형 대화를 제안한다. 최근 밀키트를 자주 검색한 이용자에게는 혼자 먹기 좋은 상품을 추천하고, 장바구니에 수분크림을 담은 이용자에게는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스킨케어 제품을 제안하는 방식이다.

또 '10분 안에 조리가 가능한 1인분 밀키트'나 '1만 원대에 구매 가능한 3개 묶음 상품'처럼 세부 조건이 포함된 선택지도 함께 제시해 사용자가 복잡한 검색어를 입력하지 않아도 원하는 상품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최빛나 기자